

# 세계 권위 고분자·조직공학 국제 학술대회 전북서 연다

내년 6월 7~11일 전북대 국제컨퍼런스홀서  
의료용 고분자·조직공학 전략 심포지엄  
도, 레드바이오 분야 활성화 위해 지지·협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가 세계 재생 의학·조직공학 분야를 대표하는 권위 있는 국제 학술대회를 전북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전북대 고분자나노공학과 강길선·이동원 교수와 전북특별자치도 조성연 과장은 내년 6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전북대 국제컨퍼런스홀에서 제16회 의료용 고분자·조직공학 전략 국제 심포지엄(FBFS '2027 Conference)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의 개최는 2017년에 이어 10년 만으로 이번이 두 번째다.



내년 6월 7~11일에 열리는 '제16회 의료용 고분자·조직공학 전략 국제 심포지엄' 포스터.

김천호 박사가 공동대회장을 맡아 대회를 이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50여 명의 기초 연구자가 초청될 예정이다. 루이 레이스(Rui Reis 포르투갈 마뉴엘대학교) 교수, 제임스 유(James J. Yoo 웨이크포레스트 의대) 교수, 클라우디오 미글리아

레시(Claudio Migliare, 이탈리아 트레비소 대학교) 교수, 다니엘 콘(Daniel Cohn, 이스라엘 헤브루대학교) 교수, 데이비드 카플란(David Kaplan, 미국 터프트 대학교) 교수, 최학수(Haksu Choi, 하버드 의대) 교수 등 해당 분야의 학문적 토대를 구축한 세계적 석학들이 전세계 20~30개국에서 초청된다.

특히 세계 조직공학재생 의학회(TERMS)의 전·현직·차기 각 지부 회장 및 글로벌 회장이 대거 연단에 오른다.

TERMS-AP 회장을 역임한 이해방 박사, 야스히코 타바타(Yasuhiko Tabata) 교수, TERMS-AM 회장을 역임한 존 피셔(John Fisher) 교수, TERMS 글로벌 회장을 역임한 루이 레이스 교수, 그리고 전 TERMS-AP 회장인 공동대회장 강길선 교수가 강의를 맡는다.

이외에도 국제 우수 학술지 편집장들과 국내 최상위 연구자 및 기업체 관계자들이 연자로 참여, 명실상부한 초호화 강연진이 구성됐다.

이 같은 구성에 힘입어 세계 각국에서 500명에서 700명에 이르는 참가자가 전북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전략산업인 레드바이오(Red-Bio) 분야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심포지엄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어갈 방침임을 명확히 했다.

학회에 대한 세부 정보는 FBFS'2027 공식 홈페이지(www.FBFS2027.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19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장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교육활동 보호 및 민원 대응 강화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 도내 교사 교육활동 보호 체계 강화

전북교육청, 학교장 대상 설명회 개최... '관계 회복 중심' 교육환경 조성 집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학교장 대상 설명회를 열고 현장 대응 역량 제고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19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장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교육활동 보호 및 민원 대응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활동 보호를 전북교육 10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6년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 방향을 비롯해 교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 등이 중점적으로 안내됐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회복조정지원단 운영과 교육활동 보호 문화 확산 사업을 통해 갈등을 줄이고 관계 회복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 시스템과 교원인심전화 서비스 법률 지원, 교원보호공제 확대 등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와 민원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아울러 교원 대상 치유 및 휴식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진단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설명회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학교가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지원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학교가 단독으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농업계고 유학생,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와 연계

전북연구원, '전북형 농생명 숙련인력 패스웨이' 제안  
단기 중심 외국인력 정책, 정주형 농업 숙련인력으로 전환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은 19일 농업계고 특성화고·미이스티고(이하 농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을 육성형 전문기술인력(E-7-M) 비자와 연계한 새로운 인력 양성 모델인 '전북형 농생명 숙련인력 패스웨이'를 제안했다.

이번 이슈브리핑에서 전북연구원은 '농업계고 유학생(D-4-3)-전북 농생명 특성화 전문대학(D-2)-전북 농생명기업 취업(E-7-M)-인구감소 지역 정주(F-2)'로 이어지는 4단계 경로를 제시했다.

또한, 기존 단기·단순노동 중심 외국인력 정책을 전북에 장기 정착하는 농업 숙련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단계는 농업계고 유학(D-

4-3)이다. 전북연구원은 송출국 직업계고와 협력해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 전 6~12개월 동안 한국어·농업 기초·한국 생활에 대한 예비과정을 운영한 뒤 전북 농업계고에 입학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전북 농촌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고, 3년 동안 전공 학습과 한국어 교육, 농촌체험·현실습을 병행하면서 전북 농생명산업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전북 농생명 특성화 전문대학(D-2)이다. 농업계고 졸업생이 전북 농생명 특성화 전문대에 개설된 농생명 연관 제조·기술 전공으로 진학해 중간기술을 습득하는 구조이다. 전북은 유학생이 졸업 시점에 E-7-M 요건을 충족하

도록 체계적으로 교육·지원한다.

세 번째 단계는 전북 농생명기업 취업(E-7-M)이다. 전문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도내 농생명기업에 취업해 공정·설비·품질·데이터 등을 담당하는 현장 중간기술 인력으로 근무하게 된다. 전북연구원은 마지막 학기에는 장기 인턴·채용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과의 매칭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졸업과 동시에 연봉·근속 등 E-7-M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대-기업-지자체가 연계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단계는 인구감소지역 정주(F-2)이다. 인구감소지역 농생명 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E-7-M 인력에게는 F-2(거주) 전환해, 가족 동반·장기 체류가 가능한 정주형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오상근 기자

## 퇴직 이후의 삶 설계... 전북교직원수련원, 퇴직준비 연수 본격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이 퇴직 이후 삶 설계를 지원하는 연수를 본격 시작했다.

교직원수련원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퇴직준비 연수 1기를 운영하며 2026년도 교육훈련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연수는 공모연수 대상 지방공무원 중 퇴직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교직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삶-새로운 시작'을 교육 방향으로 삼아 원과 치유, 미래 설계를 결합한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총 20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서는 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이해를 비롯해 재무관리와 세금 설계,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이 18일부터 20일까지 퇴직준비 연수 1기를 운영하며 2026년도 교육훈련의 시작을 알렸다.

전 작성, 뇌건강 및 한방 맞춤 건강관리 등 다양한 교육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커리 인문학, 지역문화 체험, 직업 탐색 프로그램도 포함해 실질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한다.

교직원수련원은 올해 총 23회에 걸쳐 600명을 대상으로 퇴직준비와 미래 설계, 원과 회복 과정 등을 운영할 계

획이다. 특히 기존 퇴직 예정자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재직 교직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교육 복지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연수 전 과정에 걸쳐 사전 안내와 교육생 관리, 만족도 조사, 사후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교육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 "달빛돌봄터 100곳 조성할 것"

유성동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돌봄 정책 강화 필요성 강조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유성동은 교육시민연대 대표가 지역 중심 공공돌봄 확대를 핵심으로 한 '달빛돌봄터 100곳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달빛돌봄터 100곳을 지정해 돌봄 격차를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아이들이 지역사회 어디서든 편리하고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맞벌이 증가 등으로 가정 돌봄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공공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여론조사에서 방과후 교육과 돌봄 확대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 점을 근거로, 돌봄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달빛돌봄터는 총 100곳 규모로 △학교 교형 50곳 △지역아동센터형 50곳 △학교복합시설형 5곳 △지역형 20곳 등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학교형은 학교 공간을 활용해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형은 도서관·놀이센터·수하클라니 기능을 분

담 운영한다. 학교복합시설형은 기존 돌봄시설과 연계하고, 지역형은 직장 어린이집과 청소년시설, 종교시설 등을 활용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운영 시간은 오후 8시까지 기초초학력과 문해력, 예술·체육·독서·인성·안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 시 밤 10시까지 긴급·야간 돌봄도 지원한다.

운영체제에 함께 제시됐다. 광역 단위에서는 '전북돌봄협의회'를 구성해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고, 기초단위에는 '시·군돌봄협의회'를 두어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을 추진한다. 실행 관료는 '전북돌봄사업단'과 '시·군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해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 지원, 품질 관리를 담당하도록 계획했다.

유 후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투자가 지역 인구 유지와 직결된다"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어 불세출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달빛돌봄터를 비롯해 달빛도서관, 달빛체육관 등 '달빛 3종 세트'를 통해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지자체와의 협력 추진 의지도 밝혔다. /오상근 기자

## 전북교육청, 어린이집 대상 유보통합 정책 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 이해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

전북교육청은 19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전북 유보통합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6년 공모사업과 주요 추진사업을 안내했다.

올해 유보통합 정책은 정부의 '책임형 유보통합' 기초에 맞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실행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설명회에서는 거점형 돌봄 운영을 비롯해 '드림아이(Dream I)' 유아 발달 지원 사업, 유·보·초 연계 교육, 교차학습공동체 운영 등 공모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됐다.

또한 유아 정서·심리 지원과 찾아가는 미래교육,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됐다. 이와 함께 전북유아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유아 체험 프로그램과 보육교직원 연수 내용도 공유됐다. /오상근 기자

## 전북교육청, 정서·행동 위기학생 긴급지원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긴급지원팀'을 구성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긴급지원이 접수되면 교육지원청은 정신건강전문 1명을 포함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장이 해당 학생의 상담 및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지원팀'도 별도로 운영한다. 해당 팀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심층 평가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 대지병원 등이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오상근 기자

## 전북교육청, 지역별 대면·화상 대학 진학상담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의 대면 준비를 돕기 위해 맞춤형 진학상담을 확대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30일부터 12월까지 '지역별 대면·화상 진학상담(야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전북교육청과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전주 진로진학센터에서 평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총 4회차로 진행된다.

지역별 운영 방식도 다양화했다.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교육지원청은 매주 상담을 진행하며,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교육지원청은 격주 운영과 함께 화상 상담을 병행해 접근성을 높였다.

상담 대상은 도내 중·고등학생과 졸업생, 검정고시생, 학부모 등으로 대입 상담을 원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상담 희망일 기준 4주 전부터 1주 전까지 가능하며, 1인당 상담 시간은 40분이다.

상담에는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 50여 명이 참여해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를 비롯해 대학 및 학과 선택, 수능 대비 학습 전략, 면접 준비 등 대입 전반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오상근 기자